

# 양도세 확정신고의 달...국세청 "부동산 변칙거래 검증"

## 내달 1일 마감... 해외주식 거래 '서학개미'도 대상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지난해 부동산·해외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해외주식·파

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개미'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작성, 특수관계자 간 편법 거래 등 탈루 의심사례에 대해 철저히 검

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달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부동산 1만명·국내주식 1만6000명·국외주식 18만2000명·파생상품 1만1000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외주식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생긴 '서학개미'는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세액에 20%의 가산세가,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 세액 2000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를 8월 3일까지 나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돕는 '예정신고 내역 미리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재개를 앞두고 양도세 탈루사례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거짓 매매계약을 작성해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등이 빈번하다. 또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

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산해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하고,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한 부모·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데도 형식상 세대 분리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했다"고 예고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코스피 거침없는 질주...반도체 강세에 6900 돌파

SK하이닉스 12%↑·삼성전자 5%↑ 최고가 경신

코스피가 지난 4일 5%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 6900선을 돌파, '7000피'를 목전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12p(5.12%) 상승한 6936.9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84.06p(2.79%) 오른 6782.93으로 출발해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6750.27)를 1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이후 상승폭을 키워 사상 처음 6800선과 6900선을 한번에 돌파하고 한때 6937.00까지 올라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3183억원, 1조9352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은 4조7904억원 순매도 했다. 정규장 마감 시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는 지난달 10월 2일 기록한 3조1265억원이다. 이날 개인의 순매도액도 역대 2위를 기록했는데, 역대 1위는 지난 4월 8일 기록

한 5조4161억원이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874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앞서 노동절(5월 1일)을 맞아 국내 증시가 쉬는 사이 뉴욕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지난달 30일 1.62% 오른 데 이어 이날 1일에는 0.31% 하락했으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를 연속 올랐다. 국내 증시도 미국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특히 이번주 미국 팔란티어, AMD 등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실적 기대감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된 점도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12.52%)가 장중 145만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총 1000조원



코스피가 지난 4일 사상 처음 6900선을 넘어 '7000피(코스피 7000)' 돌파를 코앞에 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38.12p(5.12%) 상승한 6936.99에 장을 마쳤다.

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삼성전자(5.44%)도 장중 23만25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세로 썼다. 아울러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17.84%)도 급등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2.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3.39%) 등도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날 급등장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락한 종목(476개)이 상승한 종목(392개)보다 많아 증시 전반으로 온기가

번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21.39p(1.79%) 오른 1213.74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93p(1.67%) 상승한 1212.28로 출발해 오후폭을 키워 한때 1222.65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상승폭을 소폭 줄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556억원 순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88억원, 73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임재용 기자**

## 광주은행 "스카이박스 이용권 잡아라" KIA타이거즈 V13 기원...7월말까지 제휴카드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KIA타이거즈의 V13 달성을 기념하며 제휴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뜨겁게 기아챔피언스카드와 함께'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벤트는 KIA타이거즈 팬들에게 실질적인 카드 혜택과 야구 관람의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대상 카드는 '기아챔피언스카드(신용)'와 '기아챔피언스 체크카드' 2종이다. 먼저 국내의 가맹점에서 10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1명에게 총 18명 입장이 가능한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30명을 추첨해 KIA타이거즈 팬들이 선호하는 '어센틱 모자'를 제공한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편의점 및 F&B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편의점 5000원 이용 쿠폰도 증정한다. 별도 응모 절차 없이 대상 카드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김해용 카드사업부장은 "KIA타이거즈의 V13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기아챔피언스카드를 통해 야구 관람의 즐거움은 물론, 다양한 경험 혜택을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해외B, GDP 짝짝 반등에 한국 경제 성장률 줄상향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대폭 상향했다. 반도체 호조에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성장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동시에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도 현실화할 것이라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5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 달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이는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1.6%)보다 1.1%p 높다. JP모건체이스도 최근 3.0%를 제시하며 직전 전망치(2.2%)보다 0.8%p 상향했다. BNP파리바는 2.0%→2.7%, 씨티그룹은 2.2%→2.9%로 각각 0.7%p 올렸고, ANZ는 2.0%→2.5%, 바클라이는 2.0%→2.4%로 0.5%p와 0.4%p 올렸다. 지난 달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블룸버그 기준 평균 기준)은 2.1%로 한 달새 0.1%p 높아졌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5곳은 지난달 중순에 전망치를 발표하며 대부분 조정을 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이 1분기 GDP 실적을 반영하면 평균 성장률 전망치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2020년 3분기(2.2%)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성장을 견인했다. **연합뉴스**



광주연구원은 광주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최근 광주교통공사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응 철도 네트워크 구축 논의

광주연구원·광주교통공사, 생활권 연결 핵심 인프라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철도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연구원은 광주교통공사와 공동으로 최근 광주교통공사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 지회가 주관했으며, 철도학회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의 교통 인프라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역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 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은 한층 커지

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통합 행정체계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철도망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연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1부 개회식에서는 고광원 광주시 행정부시장,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교통 기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 한국철도학회장이 축사를 통해 철도 중심의 광역 연계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 토론회는 이진우 대한교통학회 호남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양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 광주·전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80.5%

20만5948명 1211억원 지급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첫 주 전남지역 대상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광주·전남지역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총 20만5948명(광주 9만1690명·전남 11만 4258명)이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1차 지급 대상자 25만5731명(광주 11만4476명·전남 14만1255명) 중 80.5%(광주 80.1%·전남 80.9%)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 1211억원(광주 543억원·전남 668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급수단별로는 선불카드 8만6982명(광주 4만7580명·전남 3만9402명), 신용·체크카드 6만3709명(광주 4만4094명·전남 1만9615명), 지류 5만487명(광주 1명·전남 5만486명), 모바일·카드 4770

명(광주 15명·전남 47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지급 개시 이후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중 246만6596명(76.4%)이 신청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만8000여원으로 총 1조4013억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이 107만6418명(4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불카드 81만4481명(33.0%),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50만8490명(20.6%), 지류형 6만7207명(2.7%)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80.9%), 부산(80.1%), 광주(80.1%)에서 80%를 넘겼으며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70.4%), 강원(71.3%), 경남(73.1%)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70% 이상의 신청률을 보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한국투자증권, 29일까지 실전투자대회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인 대회 개최를 통해 연속성 있는 투자 경험을 제공하며, 대회 성과에 따라 7월 진행 예정인 '왕중왕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익률 경쟁 외에도 모든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병행된다. 선착순 3만5000명에게는 플랫폼 이벤트 참여 기회를 지급하며, 코스피 지수 예측, 신규 계좌 개설, 첫 매매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도현 개인고객그룹장은 "한투매틀이 투자 고수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인 대회 개최를 통해 연속성 있는 투자 경험을 제공하며, 대회 성과에 따라 7월 진행 예정인 '왕중왕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수익률 경쟁 외에도 모든 참가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병행된다. 선착순 3만5000명에게는 플랫폼 이벤트 참여 기회를 지급하며, 코스피 지수 예측, 신규 계좌 개설, 첫 매매 혜택 등을 제공한다. 김도현 개인고객그룹장은 "한투매틀이 투자 고수들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쉽게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